

마곡 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

투자설명회 개최, 산업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, 홍보물 제작, 매체광고 등을 통해 국내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마곡지구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4 최종예산 (A)	2015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106,674	146,674	40,000	37.4%

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투자설명회 개최, 산업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, 홍보물 제작 및 매체광고 등 국내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마곡지구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(일반산업단지의 지정)
 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(관리권자 등), 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 -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(2011.07.28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마곡지구 마케팅 마스터 플랜(마곡사업담당관-2366)

사업내용

< 투자설명회 개최 >

- 대상 : 산업협회 회원기업 및 국내·외 IT/BT/GT/NT 융복합 R&D 유망기업 등
- 장소 : 시청사, 각종 협회 및 자치구 상공회 회의실 등
- 회수 : 연 4회
- 운영방안
 - 산업협회 회원기업 및 대학연구소, 유관기관 등 관계자 초청
 - 주요 유치대상 기업 및 기관 등에 마곡 투자환경 소개

< 산업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>

- 대상 : 산업박람회 참여 국내·외 기업
- 장소 : 각종 산업 박람회 개최지 등(일산 킨텍스, 강남 코엑스 등)
- 회수 : 연 2회(상·하반기)
- 운영방안
 - 국내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박람회 참가 마곡 홍보(상·하반기)
 -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박람회 기간 내 관심기업 상담, 인쇄물 배포, 동영상 상영 등 홍보

<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 >

- 방송, 주요 일간지, 경제·투자전문지 광고 및 기획기사
- 투자유치 관련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홍보물(동영상 및 브로셔 등) 제작

▶ 2015년도 소요예산(안) : 146,674천원

□ 추진경위

- 2005. 12. 마곡 R&D시티 기본구상 발표
- 2009. 09. 기반시설 공사 착수
- 2011. 10. 선도기업 우선분양 공고
- 2012. 10. 제1차 일반분양 공고
- 2013. 02. 제2차 일반분양 대비 투자설명회 개최
- 2013. 03. 제2차 일반분양 공고
- 2013. 03. 마곡지구 마케팅 마스터 플랜 수립
- 2013. 07. BIO KOREA 2013 참가
- 2013. 07. 제3차 일반분양 공고
- 2013. 09. 제4차 일반분양 대비 투자설명회 개최
- 2013. 10. 2013 대한민국 전자대전 참가
- 2013. 10. 제4차 일반분양 공고
- 2014. 03. 제5차 일반분양 대비 투자설명회 개최
- 2014. 03. 제5차 일반분양 공고
- 2014. 07. NANO KOREA 2014 참가
- 2014. 07. 제6차 일반분양 공고
- 2014. 09.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대상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
- 2014. 09. 강서구 상공회 회원기업 대상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
- 2014. 10. 이노비즈협회 회원기업 대상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
- 2014. 10. 제7차 일반분양 공고
- 2014. 10. 2014 대한민국에너지대전 참가

2015년도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안)(A)	2015예산(안)(B)	증감(B-A)
계	73,003	106,674	146,674	40,000
사무관리비	27,413	58,070	98,070	40,000
행사운영비	40,576	42,604	42,604	-
시책추진업무추진비	5,014	6,000	6,000	-

2015년도 예산(안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관리비 = 98,070천원 · 산업박람회 참가 제경비 등 = 28,070천원 - 박람회 홍보부스 참가 등록비 11,200,000원*2회 = 22,400천원 - 장비임대료,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가입비 등 5,670,000원*1회 = 5,670천원 · 마곡산업단지 매체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= 70,000천원 - 매체광고 5,000,000원*3회 = 15,000천원 - 홍보물 제작 5,000,000원*3회 = 15,000천원 - 홍보 동영상 보완 제작 40,000,000원*1편 = 40,000천원 ■ 행사운영비 = 42,604천원 · 참석 기업 모집 및 기획광고료 6,000,000원*2회 = 12,000천원 · 초청장 및 홍보물 등 제작 배포비 7,000,000원*2회 = 14,000천원 ·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등 2,400,000원*2회 = 4,800천원 · 식음료 및 참가자용 필기용품 2,000,000원*2회 = 4,000천원 · 행사 진행요원 인건비 167,000원*6명*2회 = 2,004천원 · 행사지원 강사료 300,000원*3명*2회 = 1,800천원 · 대행사 수수료 2,000,000원*2회 = 4,000천원 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= 6,000천원 · 마곡산업단지 마케팅 활동 추진 500,000원*12회 = 6,000천원

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예산편성 → 용역 발주 및 계약(서울시-전문업체) → 과업시행 → 과업완료

○ 계약체결

-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(전자공개 포함) 또는 외부기관(한국언론진흥재단) 위탁

- 관리감독 : 발주부서

□ 사업효과

○ 연도별 기업유치 마케팅 실적('14.10.31.기준)

- 산업시설용지 총면적 729,485㎡의 54.5%(397,300㎡)에 58개 기업(대기업 33, 중소기업 25) 유치 완료

구 분		필지수	분양면적(㎡)	참여기업
2011	선도기업 우선분양('11. 10)	3	145,910	2개(9개 참여사)
2012	제1차 일반분양('12. 10)	14	81,758	4개(9개 참여사)
2013	제2차 일반분양('13. 3)	18	48,847	12개(16개 참여사)*
	제3차 일반분양('13. 7)	23	83,972	13개(21개 참여사)*
	제4차 일반분양('13. 10)	10	35,684	5개(6개 참여사)
2014	제5차 일반분양('14. 3)	1	1,129	1개(1개 참여사)
총 계		69	397,300	35개(58개 참여사)*

* 기 입주예정기업인 코오롱, 대우조선해양의 부지추가로 인한 중복 제외

※ 제5-6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포함시 실적 : 55.8%(406,756㎡), 62개 기업 등(대기업 34, 중소기업 27, 연구 1)

○ 향후 기대효과

-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우수 기업의 마곡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

□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마곡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 관련 사항 소개로 관심기업 입주지원
 - 홍보물 제작 및 매체광고 등을 활용하여 마곡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
 -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

○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146,674	
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추진	2015. 1~12월	42,604	일반분양 대비 투자설명회 개최
상반기 박람회 참가 추진	2015. 2~ 6월	14,035	박람회 참가 마곡 홍보부스 운영
하반기 박람회 참가 추진	2015. 7~11월	14,035	박람회 참가 마곡 홍보부스 운영
홍보물 제작 및 매체광고 추진	2015. 1~10월	70,000	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(3회 예정)일정에 따라 매체광고 및 홍보물(동영상 등) 제작
마곡산업단지 마케팅 업무추진	2015. 1~12월	6,000	마곡산업단지 마케팅 활동 업무추진

집행결과

최근 3년간 이·전용, 이용·불용 실적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 (A)	전년이월 (B)	이·전용 (C)	예산현액 (A+B+C)	집행	차년이월 (명시·사고)	불용
2011	-	-	-	-	-	-	-
2012	-	-	-	-	-	-	-
2013	76,674	-	-	76,674	73,003	-	3,671

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○ 해당사항 없음

실·국	부서명	담당자			
		직책	이름	직책	이름
마곡사업추진단	마곡사업과	기업유치1팀장	문양식 2133-1526	주무관	조동호 2133-1528

참 고 자 료

□ 마곡지구 개발 현황도

마곡지구 개발현황도

The Present Condition of Magok District

희망서울
일찍 만드는 서울, 일찍 누리는 서울

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

-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3.66㎡ 이상 대규모 신개발지

동북아 일일비즈니스존

- 김포공항 2km, 인천공항 40km 거리의 탁월한 접근성
- 한·중·일 간 비즈니스 중심지

사용밀집의 교통망

- 3개 지하철 노선 사업지구 관통, 6개 지하철역 위치
- 공항로, 강서로, 방화로, 수령로 등 인근 주요도로의 연결

친환경 생태도시

- 환경과 인접, 풍부한 녹지 공간



신입단지 입주확정 기업

연번	기업명	발판번호
1	FTI 새천년개발	D14-12,4,5
2	코세스아파트	D17-1
3	윙테크노스	D17-7
4	케이에이더비	D17-8
5	쿠비츠	D17-9
6	엘원	D17-11
7	웅성개발	D17-12
8	케이글로벌	D17-14
9	원보엔앤	D20-4
10	엔티테크놀로지	D20-5
11	엔티테크놀로지	D20-8
12	신승 컨소시엄	D21-5
13	세정개발	D21-8
14	호서개발	D23-1
15	중산제	D23-4
16	케이에이더비	D23-5
17	에스리제	D23-6
18	해선건설	D26-1
19	동흥	D26-2
20	소텍스	D26-3
21	에이아이	D26-4
22	태허에이테크노스	D29-1
23	원우엔지	D31-2

* 상기 개발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* 상기 개발도 및 내용은 기업별 개발계획, 입주가능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당사자는 무관합니다.

문의처

- 신입단지 입주관련 :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기업유치팀 TEL. 02-2133-1527~1529
- 상업·업무·기타용지 등 : 서울특별시 SA·공사 민속2팀 TEL. 02-3410-7277,7376,7382
- 마곡구역 아파트 분양문의 : 서울특별시 SA·공사 분양팀 TEL. 1600-3456
- 마곡구역 원스톱 지원센터 : 1644-7899



국민일보

2014년 03월 03일 월요일
012면 사회

2014년 상반기 마곡산단 투자설명회

서울시는 6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'2014년 상반기 마곡산단 투자설명회'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.

이달 말 제5차 마곡산단 투자설명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현황 및 투자여건, 기반시설 조성 현황, 입주예정 기업의 사업계획, 입주기업 금융지원정보에 대한 소개와 1대1 개별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기업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, 5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(citybuild.seoul.go.kr/magok) 또는 당일 현장등록하면 된다.

朝鮮日報

2014년 04월 24일 목요일 C07면 특별기획

도심 속 R&D 중심지... 기업투자 잇따라

SH공사 강서구 '마곡산단' 투자설명회

서울시 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산단(조감도)을 분양 중이다.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. 강서구 마곡동·가양동 일대 366만5000㎡ 터에 첨단산업단지(업무·상업단지, 주거단지 등)를 조성한다. 마곡지구에는 대규모 중앙공원과 교육·의료·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. 그중에서도 핵심은 '마곡산단'이다. 총 111만㎡ 규모로 산업단지의 핵심역할을 하는 코어(core) 클러스터와 정보·나노·바이오·정보·친환경·신재생에너지, 의료서비스·의약 등 산업별 클러스터로 조성한다. SH공사는 향후 마곡산단지가 73개개의 사업체와 61개 대학(교)가 모인 산(産)·학(學)·연(研)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. 마곡산단지는 현재 전체 분양 용지의 53.7%가 팔렸다. 총 55개사가 입

주 계약을 맺었다. LG, 코오롱, 대우조선해양, 롯데, 이랜드, 넥센타이어, 에쓰오일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. 유망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입주한다.

마곡산단지는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다. 산단지 내부는 녹지 축으로 모두 연결한다. 호텔·컨벤션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 같은 편의시설도 들어선다.

교통도 편리하다. 김포공항과 2km쯤

떨어져 있어 지하철 5호선·9호선·공항철도 등 3개 노선, 총 6개역을 이용할 수 있다.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. SH공사 관계자는 "공항철도 마곡역이 풀리길 김포공항까지 5분, 서울역까지 15분, 인천공항까지 35분에 이동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마곡산단지는 매년 2~3차례씩 순차적으로 분양한다. SH공사는 현재 5차 분양을 진행 중이다. 5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6월 중 심사를 거쳐 계약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. 1600~3456

강도원 조선비즈 기자



SH공사 제공

東亞日報

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B01면 경제 금융

서울 용 - 북합 연구단지 'LG 사이언스파크' 첫삽

LG그룹이 4조 원을 투자해 서울 강서구 마곡산단내에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 용·북합 연구개발(R&D) 단지 'LG 사이언스파크'가 23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. 이날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. 박 대통령은 특정 민간 기업의 단독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그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참여와 노력을 중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.



LG 사이언스파크 건축 개요

자료: LG그룹

투자비	약 4조 원
위치	서울 강서구 마곡산단내
부지 면적	17만6685㎡(약 5만3000평·축구장 24개 크기)
건물 연면적	111만4809㎡(약 33만7000평·축구장 152개 크기) - 지상 10층 6개동, 지상 9층 12개동 등 18개동
입주 계열사 (10개사)	LG전자, LG디스플레이, LG이노텍, LG화학, LG생활건강, LG하우시스, LG생명과학, LG유플러스, LG CNS, 서브윈
입주 연구인력	약 2만5000명
입주 계획	2017년 1단계 준공, 2020년 완공

年 9만명 고용창출... R&D 메카로

박 대통령은 이날 기공식에서 "LG 사이언스파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"며 "기업이 혁신해야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된다"고 강조했다.

● LG R&D의 심장부

이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"여러 분야 인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공간이 필요해 LG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게 됐다"며 "LG 사이언스파크를 서울의 국제적 명품 R&D 랜드마크로 만드는 한편 새로운 가치를 열어내는 '창조 경제'의 본보기로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2020년 완공 예정인 'LG 사이언스파크'에는 LG그룹 내 전자·화학·통신·에너지·바이오 분야 R&D 인력 2만5000명이 집중하게 된다. LG는 이곳을 그룹의 '첨단 R&D 메카'로 삼아 융·복합 연구 및 핵심·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. LG 사이언스파크는 연간 약 1만 명의 고용 창출과 2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LG 측은 기대하고 있다.

구 회장은 "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전자와 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"며 "하지만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중국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성공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"고 말했다.



LG 10개 계열사 연구조직 입주 축구장 24개 크기 2020년 완공

최대통령 "미래에 과감한 투자" 민간기업 단독행사에 첫 참석

최회장 "창조경제 본보기 만들것"

다. 이어 "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 발상으로 획기적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 가능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● 열린 공간 지향... 인재 유치 힘 받을 듯 LG 사이언스파크에는 LG전자, LG디스플레이

이, LG이노텍, LG화학, LG생활건강, LG생명과학, LG유플러스, LG CNS, LG하우시스, 서브윈 등 LG그룹의 10개 계열사 R&D 조직이 입주할 예정이다. 서울에 조성되는 초대형 R&D 단지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향후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구 회장은 "뛰어난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나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문화를 만들 것"이라며 "LG 사이언스파크를 이곳에 입주하는 LG 계열사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, 학계와 지역 사회 등 여러 외부의 지식과 역량이 결합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실제 이를 위해 LG는 '열린 설계'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LG 관계자는 "사이언스파크는 융·복합 연구가 핵심"이라며 "공간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연구 과정에 따라 공간 변경도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 설계했다"고 말했다. 또 LG는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·벤처기업 R&D시설을 지원하고 신기술 인큐베이팅 등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.

이날 기공식에는 박 대통령과 구 회장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박원순 서울시장,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,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정부와 서울시 주요 인사, LG 경영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.

임우선 imsun@donga.com·이재명 기자